입문수기

두번째 회, 줏대 없는 성격이 오히려 영생의 길에 도움이 될 줄이야

남대문 승리제단을 거쳐 역곡 본부제단에 다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두 분 아주머니에게 전도지를 건네받은 나는 승리제단 남대문 사무실에 나가게 되었다. 처음 남대문 사무실에 나가니 거기에는 승사님 몇 분이 계셨고 그분들은 내게 정도령님의 권능과 앞으로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비디오로 정도령님의 설교말씀도 들을 수 있었다.

생전 처음 들어본 말씀이고 또 내게 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기에 다음날도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이왕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본부제단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아들여 일요일부터는 역곡에 있는 승리제단에서 예배를 보게 되었다. 그때가 1989년 8월 20일이었고 내 나이는 50살이었다.

역곡에 있는 본부제단은 예배실이 지하에 있었다. 그래서 처음 내려가기가 꺼림칙했었다. 마음 한 편에서는 혹시 사이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이 스쳐지나갔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동안 내가 종교라고 경험한 것은 젊은 시절 천주교에 다닌 것이 전부였고 너무나도 분위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며칠 동안 들었던 정도령님의 말씀과 그리고 궁금증이 더 컸기 때문에 눈을 질끈 감고 계단을 통해 내려갔다.

계단 중간쯤 내려갔을 때부터 엄청난 열기와 우렁찬 소리가 나의 몸을 강타했는데 예배실에 다 내려오니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다. 대략 200평 정도의 공간이었는데 발을 디딜 곳이 없을 정도였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의 뒤를 따라 맨 앞쪽에 자리를 잡아 앉았다. 정도령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기 전까지 준비찬송은 계속되었고 조금 있으니 정도령님께서 나타나셨다.

내가 내려온 계단으로 정도령님께서도 내려오셨고 성도들이 정도령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모두 일어섰다. 순간 사이비종교의 교주를 맞이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걸어오시는 정도령님의 눈을 바라본 순간 그와 같은 마음은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렬한 눈빛이었고 나의 마음은 이미 그분께 사로잡히고만 것이었다.

설교말씀 중 피의 원리가 내 마음에 꽂혔다

처음 구세주의 설교말씀을 접했을 때 나의 마음에 꽂혔던 말씀은 피의 원리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 사람이 죽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피가 썩는데 그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었다. 게다가 피가 썩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식 때문이라는 것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새로운 말씀이었다.

그와 같은 구세주의 말씀은 별 볼일 없던 한 사나이의 운명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사실 나는 세상에 대한 꿈이나 포부가 없었고 또 사회에 대한 미련도 없었기 때문에 승리제단에 나올지 안 나올지 하는 고민이나 갈등을 겪지 않았다. 다만 미혼이었던 나는 규모있는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 당장의 생계가 문제였다.

그런데 때마침 승리제단에 다니고 있던 한 성도의 소개로 강남에 있는 영동백화점에서 야간청소를 하면서 오전 10시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나는 자유분방한 방랑벽이라는 못된 습성이 몸에 배어있었던 터라 영동백화점에서 6개월 정도 일하다가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 다음에 집짓는 건축현장에서 막노동을 일 년 정도 하게 되었고 또다시 문화방송국 롯데백화점 빌딩에 들어가 야간청소를 했다.

그 중에서 문화방송국은 몇 달 몇 년 간격으로 여러 번 재입사하기를 반복하였다. 그 이유는 여러 곳에서 야간청소를 해보았지만 그곳이 가장 수월하고 편했으며 시간상으로 봐도 예배 참석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생활을 2004년까지 15년 동안을 하였으니 솔직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만무했던 것이다.

이수봉 장로가 노방전도를 하기 위하여 이동하고 있다

자유분방하고 방랑벽이 있던 나의 마음속에 하루라도 예배를 빠져서 안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자리잡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루라도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생활을 했는데 그러한 생활을 한 가장 큰 주된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구세주의 권능 때문이었다. 구세주의 권능 때문에 사실 구세주를 두려워했지만 어떻게든 승리제단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마음 한 구석에 있었기에 야간청소를 하면서도 진리가 있는 승리제단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피의 원리를 구세주로부터 처음 들었을 때는 머리로만 이해를 하여 실감을 못했는데 야간청소를 하다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야간청소를 하여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부평에 있는 현대백화점에서 일할 때로 생각된다.

그곳 소장이 하루는 고객이 왕래하는 길인 매끄러운 타일바닥을 스크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도에 맞지 않는 매장의 진열대 사이를 청소하라고 했다. 그곳은 털이 푹신푹신하게 달린 카펫이 깔린 곳이었다. 솔이 부착된 스크람 기계를 작동시키면 기계가 반발하여 튕겨나가 유리그릇이 잔뜩 올려진 진열대를 들이받을 수 있어 유리그릇을 왕창 깨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이 기계 손잡이를 잡고 무리하게 스크람 기계를 작동시킬 수밖에 없었다.

진열대를 들이받지는 않았지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단 십 분을 못 견디고 기계에 과부하가 걸렸다. 기계 모터에 코일 타는 냄새가 매캐하게 나면서 모터에서 연기가 꾸역꾸역 피어올랐다. 그 후로는 기계의 솔이 돌아가는 속도가 반감되고 아무런 힘도 없이 겨우 돌아가는 것이었다. 즉 기계가 노후하여 폐기처분 직전까지 온 것이었다.

그때 나는 엄청난 것을 깨달았다. 인생문제의 해결책은 왁스머신의 솔에 해당하는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왁스머신에 부착된 솔을 탈착하면 꺼칠꺼칠한 카페트에서도 미끄럽게 왁스머신이 돌아감으로 과부하가 안 걸려 고장이 안 나는 것처럼 인체라는 기계도 나라는 의식을 제거하면 과부하가 걸리지 않게 되어 늙고 병들어 죽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과부하가 걸린다는 것은 피가 썩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체는 쇳덩어리 기계처럼 고체로 되어 있지 않고 액체인 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좌충우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불협화음을 야기해 인체라는 기계에 과부하가 걸려 피를 썩게 하는 주범인 나라는 의식을 시시각각 버려서 아주 존재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을 이긴자의 설교말씀과 나의 체험을 통해서 절실히 느낀 것이다.

이 영생의 길은 자존심이 있어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나의 줏대 없는 성격이 신앙에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한 후로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죗값으로 죽는다"는 것을 막연하게 아는 것에서 구체적으로 알게 된 것이다. 즉 선악과이자 마귀 영이고 사자 귀신인 나라는 의식 때문에 죽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나를 항상 버리라고 했고 불경은 무아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고 했으며 유교에서는 나를 이기면 천하를 이긴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평상시에도 24시간 항상 나를 의식하지 않으면 나를 버렸다가 되어서 선악과인 사자귀신, 사망의 영 마귀를 죽여 없애버렸다가 되어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 즉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생체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줏대 없는 성격이 오히려 신앙생활에는 도움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사기나 당할 어리석은 사람일지 모르나 이 영생의 길은 자존심이 있어서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길을 쉽게 가고 있는 것 같다.*

이수봉 장로/ 본부제단

피의 원리로 천지개벽한다

피가 썩지 않으려면 욕심이 없어져야 하고 근심걱정이 없어져야 한다. 욕심은 욕심 자체가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의식이 욕심을 부린다. 그러므로 '나'라는 의식을 버리면 피가 썩지 않는다. '나'라는 의식을 버리고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한다. '나'를 버리기만 하면 무아경지에 이르게 된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성령으로 거듭나 해탈경지에 이르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피가 썩고, 썩은 피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재조성 되는 세포의 수가 줄어들어 신체 전반적으로 세포 미달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포는 일정한 수명이 있어서 수명이 다하면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재조성 되는 세포는 안 썩은 신선한 피로만 만들어지는 고로 피가 썩게 되면, 세포 미달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 것이다.

그리하여 썩은 피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 얼굴에는 검버섯이 생기게 되고, 또한 백혈구의 저항력도 약화되어, 결국 병에 걸려 한 많은 생을 고생고생하다 마치는 것이 인간의 비참한 일생인 것이다.*

죄(罪)를 비추는 거울

형제라는 거울을 통하여 비춰지는 자신속의 마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거울이라면 여인들의 필수품이요 남성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도 거울을 통해 비쳐 보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거울은 자신이 볼 수 없는 곳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고마운 물건이다.

당태종(唐太宗) 이세민의 거울

당태종에게는 충직한 신하인 위징이 있어 더욱 성군으로 칭송받게 되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 위징이 사망하게 되자 다음과 같이 거울에 비유해서 자신을 비추는 소중한 거울을 잃게 되었다고 한탄하였다고 한다.

以銅爲鏡 可以正衣冠(이동위경 가이정의관) 구리거울에 비추면 자신의 용모를 바르게 할 수 있고,
以古爲鏡 可以知興替(이고위경 가이지흥체) 옛 일로 거울을 삼으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고,
以人爲鏡 可以明得失(이인위경 가이명득실) 사람으로 거울을 삼으면 자신의 잘잘못을 알 수 있다.
朕常保此三鏡 以防己過(짐상보차삼경 이방기과) 짐은 항상 이 세 거울로 나의 허물을 방비하였는데,
今徵逝 遂亡一鏡矣(금징조서 수망일경의) 이제 위징이 죽으니 마침내 거울 하나를 잃고 말았구나.

탈무드의 거울

탈무드는 유태인 6000년의 지혜가 응집되어 있는 보고라 할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유태인을 연구하고자 그 〈탈무드〉를 배우려고, 랍비의 문을 두드렸다. 그 랍비는 '탈무드'를 배울 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었다.

〈두 사내 아이가 자기집 굴뚝을 청소하였다. 한 아이는 얼굴이 새까맣게 되어 내려 왔고, 또 한 아이는 그을음을 전혀 묻히지 않은 채 내려 왔다. 그대는 어느 쪽 아이가 얼굴을 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 물론 얼굴이 더러운 아이가 먼저 얼굴을 씻을 것입니다.
-(랍비) 그러니 당신은 아직 탈무드를 열어 볼 자격이 없소.
-(어떤 사람) 답이 무엇입니까?
-(랍비) 얼굴이 더러운 아이는 깨끗한 얼굴의 아이를 보고 자기 얼굴도 깨끗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반대로 깨끗한 얼굴을 한 아이는 상대방의 더러운 얼굴을 보고 자신도 더럽다고 생각하겠지요.

위에 예를 든 두 가지 중 당태종 이세민의 첫번째 거울인 동경(銅鏡)을 제외하고는 실제 거울이 아닌 상징적인 거울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거울에 비춰 보지 않고선 자신에게 무엇이 묻어 있는지를 직접 볼 수가 없으니 거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다.

거울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주님의 말씀

제목으로 삼은 죄(罪)를 비추는 거울이 엉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우리 제단의 누구든지 자신이 다른 형제에게 거울이 되기도 하고 또한 나의 거울 역할을 해주는 형제를 수시로 만나게 됨을 알게 된다. 우리들의 푯대는 오직 주님뿐이다.

상징적인 거울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주님의 아래 말씀을 상기하여 보기로 하자.

(완성자가 되기 전 연단 과정) 나쁜 언행을 하는 형제가 눈에 띄면 자신 속에 있는 그러한 죄가 형제를 통하여 비춰진 것이라며 골방에 들어가시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다.

(완성자가 되신 후) 성도들 누구나 다 아름다우며 심지어 똥을 싸도 예쁘게 보일 뿐이며 미운 사람이 전혀 눈에 보이질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완성자는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긴" 상태의 존재이시다. 즉 극기(克己) 상태로서 〈나〉를 극복하였으므로 〈나(我)〉가 없는, 즉 욕심이 없어졌으므로 죄가 없어진 것이며, 양심만 남았으므로 〈방생(放生)〉된 존재요, 거듭난 존재요 중생의 존재가 되셨던 것이다.

자신의 얼굴에 묻은 것이 없으면 거울에 비춰 봐도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음과 같이 죄가 전혀 없는 완성자가 되면 당연히 누구의 죄도 눈에 보일 리가 없는 것이다.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 "영적(靈的)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반드시 대상자가 눈에 띄기 마련이다. 그 대상자는 보기만 해도 미운 마음이 절로 생겨난다. 대상자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면 그 대상자는 미운 짓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신 속에 있는 그 죄를 이긴 상태가 되는 것이다." 미운 마음이 생겨날 때 미워해버리면 자신 속의 마귀에게 지게 되어 마귀의 영만 그만큼 성장하게 된다고 하셨다.

이렇게 형제라는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나의 죄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순간 형제를 미워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흉을 보게 되면 자신 속의 마귀가 자라게 되어 결국은 영생의 길을 만나고도 죽음으로 걸어가는 멍텅구리짓을 하였다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자신 속의 죄가 비춰진 것이므로 즉시 〈xxx 마귀 뿌리째 뽑아서 박멸소탕〉이라는 멸마경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신 속의 마귀를 죽이려 하지는 않고 거울을 부수는 행동을 보이는 형제를 가끔 목격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울을 부수지 않고 자신 속의 마귀를 죽이기 위해선 〈반대생활〉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말씀을 들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다.

거울이 없으면 나에게 무엇이 묻어 있는 지 알 수 없으므로 거울은 반드시 필요하다. 산속의 수도승이 그렇게 해서 도를 터득하고자 함은 〈기왓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임은 그 곳에는 거울이 없기 때문이다

천국과 지옥이 나뉘는 기준

전(前) 역사인 '전도관'에서 있었던 일화를 예로 드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그 당시에 사람이 맨손으로 전기를 만져도 전기가 오지 않고, 촛불에 손가락을 넣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전도관 사람들 몸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었고 그것이 전기나 촛불과 동질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작년도 성도들의 신앙목표가 〈하나님의 영적 수준을 50%로 만들자〉는 것이었고 금년은 〈변화를 입자〉로 정해 졌다. 완전한 구세주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 영광의 빛이 온 우주에 비칠 때 50%를 확보한 사람은 그 순간이 극락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 수준이 50%에 미달되는 사람은 영원무궁토록 펄펄 뛰는 지옥이 되는 순간이다.

이제는 형제라는 거울을 통하여 비춰지는 자신 속의 마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 즉 영적 거울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 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제대로 행하여 그날 그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한다, 우리는…….

정종천 승사 / 본부제단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